

## <안산병원 2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> 남자간호사 탈의실설치 · 간편복 교체 긍정적검토 직원들의 만족과 안전이 제일 중요!



2018년 6월 7일 안산병원 2/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산안위)가 진행됐다. 오후 3시부터 진행한 산안위에는 최병민 병원장, 이승훈 기획실장을 비롯해 위원들이, 노측은 노재옥 지부장, 정혜란 수석부지부장 이하 간부들이 자리했다.

보고 및 논의안을 진행하기 전 대표위원 인사말을 나누는 시간을

가졌다. 최병민 병원장은 “산안위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인 것 같다. 취임사에서 밝혔지만 병원내 직원들의 만족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.” 고 말했다. 곧이어 노재옥 지부장은 “병원장님께서 병원을 아끼는 진심이 많이 느껴졌다. 노동조합도 병원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. 산안위는 병원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안산병원이 3개 병원 중 노동환경과 복지가 잘 된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노사 대표위원의 인사말이 끝난 뒤 노동조합이 병원에 요청한 자료에 대해 이경금 보건관리자가 보고했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. 곧 이어 노동조합이 제출한 4가지의 안전에 대해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병민 병원장은 안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 놓으며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.

산안위는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되어 오후 4시 30분 경 폐회했으며 차기 산안위는 노사 일정에 맞춰 진행하기로 했다. 다음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및 논의 안전에 대한 결과이다.

안전	노동조합 질의	병원 답변
노동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	<b>【탄력스타킹 지급에 관한 건】</b> ① 탄력스타킹 지급개수 외에 지급 건수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1컬레만 받아간 사례가 없는가?  <b>【정기교육 및 집체교육 대상에 관한 건】</b> ① 교육 대상자와 수검자 현황이 명확하지 않다. ② 그래도 교육이수자를 확인해야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논의할 수 있다.	① 한꺼번에 2개씩 지급해서 건수가 똑같다.  ① 월별로 진행하고 있어 카운트가 어렵다. ② 확인하겠다.

<p><b>노동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</b></p>	<p><b>【산업재해 원인 조사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주사침 자상이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?</p> <p>② 환자의 상태를 확인 후 조치한다는 것인가?</p> <p><b>【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는 산화에틸렌(EO)가스의 구체적 관리 대책이 있는가?</p> <p>② 시설은 잘되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 한편 이를 사용하는 관리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이에 대한 대책도 잘 세우고 평상이 사고 발생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.</p> <p><b>【직원 건강검진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2017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3명이 빠졌다.</p> <p>② 건강검진 항목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 대상자라고 했는데 제출 된 자료는 부서 항목만 있어 헛갈린다.</p> <p>③ 수술실 마취과는 빠져있다.</p> <p>④ 수술실도 포르말린을 사용하며, 타병원도 작업환경 측정도 하고 있다.</p>	<p>① 주사침 자상의 경우 프로세스가 있어서 어떠한 경로로 노출되었는지, 감염자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. ② 그렇다.</p> <p>① 24시간 2대의 기계로 국소 배기를 하고 있으며 멸균실 안은 음압상태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.</p> <p>① 바빠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.</p> <p>② 간호부의 경우 로테이션, 육아휴직등이 있어 파악이 쉽지 않다.</p> <p>③기준이 미달되어서 제외되었다.</p> <p>④ 확인해보겠다.</p>
<p><b>지난 산안위 이행점검 건</b></p>	<p><b>【건강관리실 의약품 지급 통일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의약품 목록이 병원별로 차이가 있다. 안암은 10종, 구로는 9종, 안산이 8종으로 되어 있어 병원마다 처치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품목이 다르다.</p> <p>② 차이가 나지 않게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.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있다.</p>	<p>① 의약품 종류중 지급이 가능한 품목과 처치용 품목이 있어서 종류가 차이가 나는 것 같다.</p> <p>② 병원별로 8종인이 10종인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. 확인해 보겠다.</p>
<p><b>5) 근로자 유해 및 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건</b></p>	<p><b>【간편복 병동 확대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현재 입고 있는 간호사들의 유니폼이 활동의 제약이 많고 불편함이 초래되어 특수파트에서 입는 간편복으로 교체하고자 한다.</p> <p>② 병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. 이후 의료원과 논의하겠지만 병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 하는 것이다.</p> <p><b>【간편화 부서 확대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간편화를 지급받는 직종이 일부에 불과하고, 의기직의 경우 인가운을 입고 근무를 하지만 신발이 지급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. 또한 간편화를 통해 미끄럼등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출퇴근용 신발을 업무중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다. 하지만 지급되지 않으니 확대 지급하자는 것이다.</p> <p><b>【남자 간호사 탈의실 및 휴게실 설치에 관한 건】</b></p> <p>① 현재 안산병원 남자 간호사가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탈의실 및 휴게실이 존재하지 않아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다.</p> <p>② 몇 명 정도 사용 가능한가?</p> <p>③ 사용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?</p>	<p>① 의료원 피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산안위에서 논의할 안건이 아니다. 또한 간호사 유니폼의 경우 간호부 의견을 듣고 교체 필요성을 느꼈을 때 3개 병원 동시에 임단협을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</p> <p>②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.</p> <p>① 크룩스화가 오히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생각한다. 또한 환자보호자들의 입장도 확인해야 한다. 그러나 실용적이고 좋다면 해야 한다.</p> <p>② 부서마다 다른 것 같다. 필요해서 요청을 하시면 타당성을 따져보고 지급할 수 있다면 하겠다.</p> <p>① 현재 별관에 남자간호사 탈의실을 마련 중이다. 하지만 병동의 경우 병동마다 만들 수 없어 조금 불편할 수 있다.</p> <p>② 10명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. 넓게 해 놔다.</p> <p>③ 원래계획은 5월 말이었는데 7월 중순에 오픈 하려한다.</p>